

KOIMA NEWS LETTER

ISSUE
NO.12

2026. 7. 6



한국수입협회, 한국수입엑스포 성황리에 개최

CONTENTS

01. 6월 협회 소식

- (1) 2026 한국수입엑스포
- (2) 6월 회의 및 면담 소식

02. 6월 회원사 소식 및 무역 뉴스

03. 회원서비스 및 Upcoming

- (1) 2026 한국수입엑스포
- (2)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수입 사절단
- (3) 제179차 KOIMA 리더스포럼 개최
- (4) KOIMA 분과위원회 오픈채팅방 개설

04. 6월 신규회원사 소개

2026년 6월 신규회원 9개사 소개

공급망 다변화와 신규 수입선 발굴의 장, 2026 한국수입엑스포 개막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 윤영미)는 6월 23일 서울 코엑스 Hall B에서 국내 유일의 수입 전문 전시회인 ‘한국수입엑스포(Korea Import Expo 2026)’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수입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후원하는 한국수입엑스포는 해외 우수기업과 국내 바이어를 연결하고, 새로운 수입선 발굴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대표 글로벌 소싱 플랫폼이다. 특히 올해는 23년간 이어져 온 ‘한국수입박람회(Korea Import Fair)’를 ‘한국수입엑스포(Korea Import Expo)’로 새롭게 개편한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해외 기업과 국내 바이어를 연결하는 일회성 중개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구매 계약과 장기적인 공급망 구축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소싱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개막식에는 허성무 국회의원,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등 국내 주요 인사를 비롯해 60여 개국의 주한 외국대사와 상무관, 경제·통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수입엑스포의 개막을 축하했다.

윤영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와 소싱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수입엑스포가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싱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수입엑스포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신규 공급선 발굴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EU가 한국수입엑스포의 공식



주빈국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한국수입엑스포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기간에는 국내 수입업체와 유통기업, 이커머스 플랫폼, 대형 유통사 바이어 등이 참여한 1:1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열려 해외 제조사 및 브랜드와 국내 바이어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과 신규 거래 발굴을 지원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새로운 통상질서로 자리 잡는 가운데, 한국수입엑스포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제조사 및 브랜드와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6월 회의 및 면담 소식]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양국 교역 확대 방안 논의



윤영미 협회장은 6월 9일, 아세트 이세날리(Asset ISSENALI)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날리 대사는 카자흐스탄이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AI, 인프라, 가공, 첨단,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성장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생산라인 구축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협력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을 밝혔다. 아울러 수입사절단의 카자흐스탄 방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회장은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및 인접국과 연결되는 중요한 교두보이자, 광물·곡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전략적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8월 중앙아시아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카자흐스탄과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외교부 국제협력 차관과 양국 교역 확대 방안 논의

협회는 6월 10일, 아리아스 베나비데스(ANGÉLICA ARIAS BENAVIDES) 에콰도르 외교부 국제협력 차관의 예방을 받았다.

베나비데스 차관은 에콰도르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바나나와 새우 등 주요 농수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소개하고 수출 확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우리나라가 식품을 포함한 주요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 만큼, 에콰도르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요르단 상원의원과 실질적 교역 확대 방안 논의



윤영미 협회장은 6월 12일 오전, 아흐마드 알쿠다리(Ahmad Al-Khudari), 마므두흐 나바스(Mamdouh Nabas) 요르단 상원의원의 예방을 받았다.

알쿠다리, 나바스 요르단 상원의원은 식품, 화장품,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시장 진출과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요르단 측이 한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B2B 포럼, 비즈니스 매칭,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자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콰도르 측 무역사절단 방한 시 협회가 한국 수입업체와의 연결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6월 회의 및 면담 소식]

중앙 아나톨리아 수출업협회(OAIB) 이사회 의장과 양국 교역 확대 방안 논의



윤영미 협회장은 6월 12일 오후, 아브신 카식츠(AVŞİN KAŞIKCI) 중앙 아나톨리아 수출업협회(OAIB) 이사회 의장의 예방을 받았다.

아브신 카식츠 이사회 의장은 튀르키예가 유럽·아시아·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물류·경제 거점 국가로서 밀가루, 파스타, 식물성 오일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식품 수출 규모가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으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수입업자들과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양국 간 식품 교역이 시장 특성과 정보 부족 등으로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식물성 오일, 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분야에서 공급선 발굴과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교역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상공회의소 회장과 양국 교역 확대 방안 논의

윤영미 협회장은 6월 12일 오후, 안토니오 루이스 까리까르페 코로나(Antonio Luis Carricarte Corona) 쿠바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토니오 루이스 까리까르페 코로나 회장은 한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식품, 제약·바이오, 관광 등 쿠바의 유망 산업 분야와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쿠바 산업에 대한 국내 인지도 제고와 B2B 교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및 교역 확대를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과 양국 무역 확대 방안 논의



윤영미 협회장은 6월 30일, 까를로스 라미로 마르티네스 알바라도(Carlos Ramiro Martínez Alvarado)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마르티네스 장관은 한국과 과테말라가 투자와 교류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며, 향후 통상 협력 기반 강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윤 회장은 한국이 주요 농산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과테말라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회원사 소식]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김덕용 협회 부회장 베트남 통관 전문기업 FIDUS와 전략적 제휴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는 6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현지 통관 전문기업인 FIDUS Customs Vietnam Company Limited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베트남 통합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스카이브릿지는 하노이를 거점으로 양국 간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관세, 원산지 관리, FTA 활용, 세관조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통관 절차, 세관 규제, 인허가, 원산지 관리, 사후검증 등에 대해 밀착형 지원을 제공해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카이브릿지는 이번 베트남 하노이 거점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한 글로벌 관세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관세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 출처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16000032397>

최승웅 협회 제12대 회장, 주한명예영사단 부단장 자격으로 대통령 주최 주한외교단 만찬 참석



최승웅 협회 제12대 회장은 주한명예영사단 부단장(트리니다드 토바고 명예영사) 자격으로 대통령 주최 주한외교단 만찬에 참석했다. 이번 만찬은 주한 외교단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최 회장은 각국 외교사절들과 환담을 나누며 국제 협력 증진과 민간외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기사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624500283>

2026년 6월 수출입 동향

'26.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2.5억 달러, 수입은 30.1% 증가한 661억 달러, 무역수지는 36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미국의 관세 조치,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에너지 불안,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과 화장품·농수산물 등 유망 소비재의 고른 수출 호조로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품목·시장 다변화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월별 수출실적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구분	'25.6	7	8	9	10	11	12	'26.1	2	3	4	5	6
수출액	598	607	583	659	595	608	695	658	677	873	858	878	1,023
증감률	4.3	5.7	1.1	12.6	3.5	7.9	13.3	33.9	29.4	50.4	47.9	53.4	70.9
일평균	28.5	24.3	25.9	27.5	29.8	27.0	29.0	28.0	35.6	38.0	35.8	42.8	45.4

- 월별 수입실적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구분	'25.6	7	8	9	10	11	12	'26.1	2	3	4	5	6
수입액	508	542	519	564	535	513	574	571	519	604	621	608	661
증감률	3.5	0.7	▲4.1	8.3	▲1.5	1.1	4.6	11.6	7.3	13.3	16.6	20.7	30.1
일평균	24.2	21.7	23.0	23.5	26.8	22.8	23.9	24.3	27.3	26.3	25.9	29.7	29.4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26-07-01) 바로가기

정부, 1조 원 규모 재정 투입으로 하반기 물가상승률 3% 이내 관리

정부는 6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완화,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보다 인하하되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기·가스요금 동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6-26) 바로가기

회원서비스 & Upcoming



중앙아시아 수입 사절단

기간 | 2026.08.22(토)~08.29(토) (6박 8일)

지역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카자흐스탄 알마티

* 카자흐스탄의 경우 CEO 하계세미나와 연계하여 운영

주요활동 | 비즈니스포럼, 1:1 상담회, 산업시찰 등

카자흐스탄 수입 사절단

제39회 CEO 하계세미나

기간 | 2026.08.25(화)~08.29(토)

지역 |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요활동 | 비즈니스포럼, 1:1 상담회,
현지인사 초청 세미나, 주요기업 시찰



※ 이번 사절단 모집은 마감되었으며, 향후 진행될 수입사절단 프로그램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79차 KOIMA 리더스포럼

시작은 한강라면, K-푸드 세계화의 침범

연사 | 신영석 범일산업(주) / 하우스룩 대표이사

일시 | 2026.08.20(목) 07:30 ~ 09:00

장소 |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 사파이어룸 (삼성동)

식순 | 07:30 ~ 08:00 조찬

08:00 ~ 08:50 강연

08:50 ~ 09:00 Q&A

문의) 회원서비스실 ☎ 02-790-6947, 02-793-2464



QR코드를 통해
상세 내용 확인

리더스포럼 신청하기 >

※ KOIMA 리더스포럼 무료 참가 대상이신 회원께서도
참석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회비 완납사 2회 무료 참가 가능)

KOIMA 분과위원회 오픈채팅방 개설 안내

KOIMA 분과위원회

한국수입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수입 활동 지원과 분과별 애로사항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개 분과위원회

농수산물 가공기계, 농축수산물, 무역·통관서비스, 물류, 미래첨단기술산업, 법률·지식재산 서비스, 뷰티산업, 산업 일반기계·장비, 산업용기초소재, 생활가전설비, 식품·외식 산업, 운송·중장비, 유리원료, 유통서비스, 의료·제약·보건, 정보통신·디지털플랫폼, 제설원료, 패션·섬유, 필수소비재·여가용품, 환경·과학계측기기

☆ 분과위원회 참여 이점

- 회원사 간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한 신속한 현안 대응 및 협업 가능
- 업계 애로사항의 체계적 취합을 통한 회원사 권익 보호 및 위상 강화
- 회원사 간 네트워킹 확대 및 사업 기회 창출

💡 오픈채팅방 참여방법

- ① 한국수입협회 회원서비스실 members@koima.or.kr 메일로 KOIMA 분과위원회 오픈채팅방 참여 희망 의사 전달
* 분과위원회 참여는 정회원사만 가능합니다
- ② 안내받은 분과위원회 오픈채팅방 링크 확인
- ③ [성함/상호/직함]으로 프로필 설정하여 입장 및 정보 공유

☎ 문의) 회원서비스실

☎ 02-793-2464 / 010-3949-1581

✉ members@koima.or.kr

6월 신규회원사 소개 (총 9개사)

업체명	대표자명	취급품목	이메일	사이트 주소
네모시스템 주식회사	노원석	특수목적컴퓨터(산업용컴퓨터)	-	https://www.nemosystems.co.kr/
프리맥스실업(주)	이상우	닭날개&닭발&버팔로치킨 등	plemax5@plemax.co.kr	-
주식회사 본452 (Born452)	장상근	원료의약품(API) 및 바이오의약품(백신 등)의 원료 및 중간체 등	christina@born452.com	-
주식회사 레인보우피앤피	홍죽선	인쇄 / 출판	marqvalue@gmail.com	https://www.rainbowpnp.co.kr/
유니레버코리아(주)	지용권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류	es.hrsviceskr@unilever.com	https://www.unilever.co.kr/
(주)일동인터내쇼날	용옥화(최민호)	음식제인화사업 (치킨전문점)	-	-
주식회사 렉스팜	이인성	수입육	-	-
신호산기(주)	조후용	쇼트설비, 도장설비, 대기오염방지시설, 산업기계 등	sinho@sinhosp.com	https://www.sinhosp.com/
올케어메디	황영준	의료용 스크러 및 위생용품	psc9610@naver.com	-

KOIMA 신규 회원사 모집

KOIMA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과 불안정한 공급망 속에서 국내 유일 수입 전문 경제단체로서 귀사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회원사 혜택 서비스 안내



Business Support

- 해외 소송/중재 컨설팅 및 주한외국대사관, 무역유관기관 교류 지원
- 수입사절단 비용 최대 40% 지원(항공임, 숙박비, 통역비 등)
- 12만 국내 수입사 DB 제공(국내 유일)



Networking

- 하계세미나, 회원초청 골프 대회 등 '회원단합행사'를 통한 소통 기회 제공
- 청년·여성 CEO 위원회 및 산업·품목별 분과위원회 운영
- 8개 동호회 운영 (골프, 등산, 합창단, 종교 등)
- 홈페이지, SNS 등 신규 회원사 홍보



Education

- 무역특화 교육 - 맞춤형 무역 실무 핵심교육과 1:1 멘토링 진행
- 리더스포럼 - 국제경제 동향 및 실전 경영 수업 진행

가입 절차



1. 구비 서류 준비



2. 서류
이메일 또는 FAX 송부



3. 연회비 납부



4. 담당자 승인 후 가입완료

★협회 사업 참여시 회원 1개사당
연간 약 200만 원 이상 혜택 부여★

- '회원사 혜택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 링크 : <https://bully.kr/9BXCuUz>

- 'KOIMA 정회원 가입 문의 신청서' 바로가기

▷ 링크 : <https://bit.ly/4rDLQVY>

문의) ☎ 회원서비스실 02-793-2464

✉ 이메일 : members@koima.or.kr FAX : 02-798-5461